

근대 건축공간에서 시공간 개념에 관한 연구

- 근대적 시간의 개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ime-space of Thesis in modern architecture space

- Focus on concept of modern time -

장세연* / Chang, Se-Yeon

이성훈** / Lee, Sung-Hoon

Abstract

We are defined a space as the activities of creating value in harmonic relations between human and environment. After Industrial Revolution, relations between human and space is changing because of speed and visualization's power in contemporary society. We are known information where is far by means of visualization. There is only difference of speed.

Movement in space means the line of vision and circulation. But it is tried to think relations between human and space again in result to experience indirectly. This study aims at the analysis of expression of the modern Architecture space in Giedion' Space, Time, Architecture and aesthetic systems applied to it. On the basis of that,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of Bergson' consideration from Modern Architecture about movement.

키워드 : 근대 건축 공간, 시간, 운동, 근대적 시선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공간 디자인이란 동시대 사회 문화적 영향 아래 인간을 둘러싼 모든 요소와 인간간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가치 창조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¹⁾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산업 혁명 이후 움직임의 강도인 속도와 시각의 강화로 조화로운 인간과 공간의 관계 형성이 변하고 있다. 인간은 시각을 통해서 먼 거리에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단지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²⁾

공간에서 움직임은 신체성을 중심으로 동선과 시선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간 체험의 의미가 신체의 직접적 움직임 이외, 간접적, 비현실적 체험의 강조는 시간과 공간, 인간과의 관계성을 재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바는 산업 혁명 이후 근대 과학 기술의 성과에 힘입은 근대건축공간을 고찰하는 배경이 된다. 자유로운 운동의 유희하는 평면, 내 외부 공간의 상호관입을 통한 투명성, 동시성, 공간의 연속성 등의 특징을 근대건축공간은 가지고 있으며 특히 움직임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근대 건축공간에서 움직임 즉 시간의 도입으로 시공 개념이라는 새로운 미학적 표현체계를 내세운 기다운의 시공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시간의 도입으로 인한 근대건축공간과의 상관성과 시간, 운동에 대한 베르그송의 입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한다. 이는 동시대 공간에서 인간과 공간과의 관계성 연구를 위한 기초적 작업에 해당하며 사전적 고찰이라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기다운의 저서에서 나타난 시공간 개념 특히 시간이 개입된 운동에 관한 것이다. 그는 근대건축공간의 특징으로 인간의 행동인 운동성을 나타내는 시간 개념을 내세우고, 그것을 공간과의 연속체로서 파악했다. 따라서 그의 미학적 논리의 의의와 시공간에 대한 해석을 운동의 개념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근대 건축공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근대건축공간의 탄생을 근대과학-뉴우턴, 아인슈타인-, 예술-미래파, 입체파-, 철학-데카르트, 칸트- 사상사적 배경을 공유

* 정희원,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 경원대학교 건축실내건축학부 조교수

1) 권영걸, 인테리어, 2000.01

2) 임상진, 건축공간에서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하고 있어 사전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3장에서는 근대건축공간에서 공간론의 성립배경과 기디온의 새로운 공간개념인 시공간 개념에 대한 고찰을 한 후 미학적 의미와 그에 따른 결과를 다루었다. 더불어 베르그송의 시간, 운동에 대한 사고와 이를 토대로 기디온의 시간, 운동 개념과 베르그송의 그것을 분석하면서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한다. 4장은 근대건축공간에 대한 사례 분석이다.

2. 시공의 제반 학문적 배경

2.1. 과학적 배경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되는 근대 과학에서 그는 만물의 기본 구성을 입자로 인식하였고 이는 관찰 가능한 실체로 파악한다. 이러한 전제는 물질과 운동을 통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주었고³⁾ 또 다른 의미는 물질과 공간의 분리 가능성이다. 따라서 시간, 공간도 물질로부터 분리, 물체가 운동하는 배경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등 현대 물리학자에 의해 새롭게 수립한다. 뉴턴의 절대공간, 절대속도는 항상 정지를 전제로 하나, 이는 가정된 시간이다. 그러므로 양으로 환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의 물질과의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공 연속체로서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시공의 개념을 내놓는다.⁴⁾ 이는 시공의 역학적 성질을 부여함과 동시에 건축 공간에도 영향을 주게된다.

2.2. 철학적 배경

절대적 진리, 신존재의 부정과, 인간, 이성적, 절대적 신념은 데카르트, 칸트, 헤겔로 이어지는 계몽 프로젝트의 내용에서 볼 수 있다. 칸트는 근대를 해방, 자유, 독자성의 원리로 이루어진 시대로 이성과 세계간의 문제 해결을 그 주제로 제시하였다. 그는 주체는 선험적으로 객체와 분리 될 수 없기에 공간 개념에서도 적용되어 인간은 시공을 선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절대적 시간 공간만이 존재한다고 했다.⁵⁾ 이러한 칸트의 자아와 외부세계의 갈등구조를 극복하고자하는 헤겔은 문제 갈등의 모순을 해결의 통일적 계기로 파악하는 변증법적 입장을 취하여 궁극적으로 정신의 완성, 주객의 동일 상태를 상징한다.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인식은 시공에 대한 사고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인식주체와 대상간의 부단한 갈등구조로 파악되어, 동적 성격이 강조되었으며 공간, 시간은 물질에서 분리되지 않고 물질은 시공의 종합으로 부차적인 것이 된다.

2.3. 예술사적 배경

3)이상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 이상건축 2000.10
4)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5)배형민, 현대건축에서 철학적 조명, 건축학회

하나의 새로운 예술형식의 탄생은 새로운 세계관에 따른 사물을 보는 관점의 차이를 배경으로 한다. 1920년대 일어난 큐비즘은 과학에서 이론 성과에 힘입어 대상을 내적 구조로 파악하기 위해 시각의 범위와 차원을 확장하고자 했다 이는 르네상스 이래 2 차원적 투시도법을 탈피하여 대상 인식에 있어 다중시점을 추구하였고 창작 활동 또한 시공 표현을 위해 선, 각도의 개방적 사용은 면의 돌출, 후퇴, 상호 관입, 부유, 투명성을 새롭게 담아냈다.⁶⁾ 공간적 접근과 더불어 시간의 변이에 따른 예술 형식의 창조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 시대 예술 형식은 시공의 예술적 승화로의 부단한 노력인 동시에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 아래 진행되었다. 시간에 대한 그들의 사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 데 주관적, 객관적 요소로 파악된다.⁷⁾ 즉 관찰자의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존재하는 시간과 관찰자의 움직임에 관련되는 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대의 시공 개념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3. 건축공간론

3.1. 근대 건축공간론에서 시공간

건축에서 공간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19세기 후반으로, 공간의 3 방향을 가지는 데카르트적 공간에서부터 인간의 체험에 의한 감정과 운동의 개념을 통한 감정 이입적 공간 등 건축적 공간의 미학적 확립과 존재성을 규정하거나, 공간 형태에 따른 매스의 둘러싸는 형태 혹은 둘러싸이는 공간의 구별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파울 슈커는 공간적 본질은 시간과 공간의 결합을 통해서 가능하며 시간이 배제된 것을 복원시켰다. 이로서 시간은 건축에서 미적 고찰 요소로 도입되었다⁸⁾.

이러한 건축 공간론 등 일련의 공간론에 대한 근대적 시각으로 역사적 서술을 시, 공간의 도입으로 기디온이 행했다. 그는 19세기를 사고와 감정, 과학과 예술, 물질과 정신, 건축과 건설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피상적 일시적 취향에 종속된 시대인데 반해 20세기를 공간, 시간이라는 표현 매체로 인해 건축의 새로운 전통, 더 나아가 통합된 문화로 구상하고자 한다.⁹⁾ 이러한 그의 사고에서 기인하는 시공의 개념은 그 시대의 새로운 인식 및 표현 체계로 받아 들여 건축 공간의 내, 외부 상호 관입, 자유로운 평면, 상이한 레벨의 상호 관입 등을 필수적 요소로 근대건축공간을 바라왔다. 이러한 기디온의 시공 개념은 시간의 변화와 발전의 관계로 파악한 이행론적 미학 체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시적 관점은 시간에 대한 사유를 통해 근대 이성의 합목적적 질서를 통한 논리적 결과물이 도출되는 인과론적 시각이다. 즉 공간 내에서 시간의 자유

6)기디온, 시간, 공간, 건축, 시공문화사
7)이대암, 시간예술로서 건축, 건축학회
8)최은희, 해체주의 건축공간에서 시공 개념, 연세대 석론
9)강혁, 근대건축사의 기술과 해석의 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

로운 흐름에 따라 공간의 방향성이 전개되는 시공간 개념은 개방적 균일한 성격을 가지며 상호 관입의 투명성의 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미학적 인식의 공간 개념은 논리와 합리적 이성에 바탕을 둔 근대적 시각이 공간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다.¹⁰⁾ 한편으로 기디온의 시공간이 도입된 것은 운동을 의미하므로, 시공간 개념은 인간의 행위인 운동성으로서 시간의 도입이란 운동의 관점에서 근대건축공간의 특징을 조망할 수 있다.

3.2. 시간, 운동의 개념

철학에서 운동과 공간의 주제는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어 왔다. 세계인식의 논하는 과정에서 특히 변화를 인정하는지, 양은 지 등에 상이한 시각이 존재한다. 고대 철학자 제논은 운동의 파라독스에서 운동은 변화이고 변화는 시간이라 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은 운동, 움직여진 사물 그것에 속하는 어떤 것 이어서 시간은 가변적이며 길이가 있어 가산 가능하다는 수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칸트는 시간은 지속 계기의 동시 존재로 파악했으며 베르그송은 시간이란 객관적 시간으로 의식 경과에 내재된 시간으로 순수지속이라 했다.

건축적인 시간은 건축물이 완성공간과 시공간의 연속체로서 시간과 건축공간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시간성이 내재한다는 시간의 개념이 있다. 전자의 경우 그리스 미학자 미헬리스는 건축의 본질적 체험은 예술적 공간 감정이며, 공간이 무한함과 동시에 유한하며 또한 시간과도 결합되어 미적 체험하는데 있어 공간체험은 계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개념은 처음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후자의 경우는 건축을 시간예술로 간주한 보리스블리에치로 그는 눈이 보는 것은 보이는 동안 걸린 시간에 좌우되어 건물의 모든 부분과 비례는 시간에 달려있다고 했다.¹¹⁾ 시간의 개념이 감상적 차원에서 개입되는 경향이 짙으며 공간과 대등한 요소이기보다는 부수적인 측면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3.3. 베르그송에서 시간, 운동

건축과 철학에서 해석된 일반적 시간, 운동의 개념이 베르그송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보고 이에 힘입어 기디온의 시공간개념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서구 사상사적 흐름은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적 갈등의 역사이며 이러한 지적 전통 즉 철학의 물질에 대한 개념적 의존에 기인하였으며 이에 물질을 이미지의 총체로 파악한 베르그송은 이원론의 극복을 주장한 철학자였다. 물질이란 사물과 표상의 중간에 존재하여 사물과 사유의 성격을 가진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신체 외부세계, 행위 모두가 이미지가

되며 이미지는 물질의 총체로서 외부세계와 나의 관계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지각이 성립한다. 각각이 연역되는 관계가 아니라 행위, 운동을 통해 이미지가 지각된다. 그 이미지가 운동이므로 운동으로부터 구별되는 물질이란 없다. 따라서 운동이란 현재를 덮는 행위로 분할 불가능하며 분할되는 순간 질적 변화를 통해 분할 가능해진다. 즉 넓은 공간은 동질적인데 반해 운동은 이질적이며 환원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운동은 구체적 지속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수 이질성이라 할 수 있다.¹²⁾ 이러한 사고는 플라톤 이래 시간과 공간의 전통인 공간화된 시간에 대한 비판이다. 공간에서 운동을 배제한 공간은 절대적 유클리드 공간의 개념적 근거와 물질세계에 대한 기하학적 측정의 부파하여 공간이 연장되고 양적 운동만이 존재한 공간관으로 정신은 질적 비연장적 이미지고 물질은 연장되고 양적 운동만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시간 운동에 대한 철학은 근대 과학 이후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근대의 추상적 시간관-시계적 시간관-인 공간의 시간화에 반대한다.¹³⁾

4. 근대 건축공간에서 운동

4.1. 근대 건축적 시간, 운동

앞에서 살펴본 베르그송의 시간 운동 개념은 근대적 시간론과 배치된다. 즉 근대적 시간이란 시계적 시간으로 시간의 직관적 성질-분할 불가능, 순수지속, 이질성-을 간과했다. 이러한 인공적 이행은 공간의 연장 이미지로 나타나는 시간개념으로 동시성에 근거한 정돈된 시간적 계기로 공간에 비추게 된다. 베르그송의 시간, 운동의 개념은 건축적 시간으로 유추해보면 운동 시간은 공간과 섞이지 않고 굴곡으로 채워진 이질성의 순수 지각인 객관적 시간 개념과, 움직임의 개입으로 인한 즉외재적 시공이 주체 내부로 끌어들여 개개인의 판단 경험에 지배당하는 근대의 시간 즉 기디온의 4차원으로서 시간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앞서 밝힌바 있는 이행적 관점의 미학 논리로 연결되기도 한다.¹⁴⁾ 더불어 기디온의 시공간개념에서 시간에 대한 해석은 근대 과학에 의존한바 인간의 행위로 운동을 나타내는 시간의 점부로 인해 혼동했다. 즉 공간은 분할가능하나 운동은 공간화 될 수 없다. 공간에서 운동은 정지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 정지는 운동체의 위치 즉 움직임을 통과하는 점으로 위치가 많다고 해서 운동은 아니다. 운동이 멈춘 장소를 투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¹⁵⁾ 여기서의 운동은 질적 변화의 운동이 아니라 위치이동이다. 위치이동이란 사물의 정체는 중요하지 않고-질적 규정성의 배제- 힘이 외부에

12)김선갑, 사건 개념을 통한 건축 이론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3)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14)이용재, 건축공간에 대한 미학적 인식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 학회

15)김선갑, 사건 개념을 통한 건축 이론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0)이용재, 건축공간에서 미학적 인식에 관한 연구, 실내 디자인학회

11)이대암, 시간 예술로서 건축, 건축학회

서 가해지기 전에는 계속 운동하는 선회성을 띤다.¹⁶⁾ 이러한 관점에서 기다온의 인간의 행위인 운동성을 나타내는 시간은 위치이동이며 외부에서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한 연속적인 움직임만 있게 된다.¹⁷⁾ 그러므로 공간의 시간은 근대 과학의 운동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¹⁸⁾ 인간은 기계처럼 계속 움직이는 존재로서 추상적이며, 연속적인 유동하는 공간 개념이 결과되어진다. 이러한 점은 기다온을 비판한 제비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¹⁹⁾ 인간의 행위란 운동성으로서 시간은 질적 측면이 배제된 공간화된 시간으로 공간과 뒤섞임으로서 근대공간의 기능주의-양적 시간의 절약에 따른 효율성의 추구-의 양적 생산과 추상적인 공간으로 이어진다.

<표 1> 기다온, 베르그송 비교

	Giedion (근대적 시공간)	Bergson
시간	합목적적 발전과 기계론적 시간관, 공간화된 시간	순수지속, 이질성, 직관
운동	선회운동, 무원인성, 운동 분할, 위치이동, 양적 이동	분할 불가 양적 환원
공간	공간, 시간의 혼합	이미지
행위	자유로운 연속적 부유하는 움직임	대상세계와 자아와의 관계속 행동, 지각은 행동에서

4.2. 근대건축 공간에서 시선

플로미냐에 의하면 꼬르뷔제의 기본적 정의 즉 주택은 세상을 보기 위한 장치이자 시각 메커니즘이라 한다. 이는 근대 건축공간이 그 이전의 건축의 고정된 시점을 인정하지 않는 공간 내부에 있다는 것은 단지 보는 것이고 외부에 있음은 이미지 안에 있다는 것으로 결국 매체에 -잡지, 텔레비전, 사진 외부세계- 에 보임을 당한다고 한다.²⁰⁾ 이는 내, 외부 공간에 있어 움직임을 주도하는 시선은 외부세계 즉 매체로 내부 공간의 무한한 확장을 주도하며 그 속의 주체는 끝없이 유동하여 공간의 연속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미스 반 데어 로에는 벽의 외향적 지향과 내부적으로 벽의 해체를 통해 공간의 연속성을 표현했



<그림 1> 꼬르뷔제 라로셰 저택

<그림 2>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으며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서 기능이 등장했다.

5. 결론

근대건축 공간의 특징은 시간, 운동, 공간을 통한 새로운 미학 즉 과학, 기술의 예술과의 통합과 공간의 새로운 표현체계인 시공 개념의 적용으로 인한 자유로운 평면, 기능적 효율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다온은 시간이 도입된 시공 연속체로서 운동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시간이란 요소를 2가지 관점에서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결론이 도출된다. 즉 이행적 미학 인식의 개념으로 파악한 시간의 흐름은 공간에 방향성이 전개되어 개방적, 균일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합리적, 발전적, 근대적 시간 개념에 따른 기능주의적 공간 양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은 베르그송의 비교에서와 같이 근대적 공간의 시간은 분할 가능한 즉 양적 운동인 위치의 이동만 인정되어 근대 건축공간의 구체적 공간 경험의 존재로서 인간이 배제된 추상적 공간으로 이어진다. 이는 공간의 시간화에 따른 양적 생산이 가능한 기능주의로 결과되어진다.

건축적 시간의 측면에서 공간과 운동, 시간은 섞일수 없다는 전술에 따른다면 공간에서 시간의 부차적 요소로서 도입은 시간 자체에 대한 창작적 요소로서 입지를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근대건축공간에 대한 평가는 결국 기술과 예술의 통합의 직설적 의미-공간의 양화와 시간의 절약에 따른 효율성-보다는 상징성-새로운 공간 구성-으로만 인정이 되었고, 신체와 시각의 움직임을 통한 공간 배치 방식 역시 추상적 주체를 설정함에 따라 공간의 표준화, 대량화 등 공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조화적인 측면을 발생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근대 건축공간에서 제기된 시간의 개념은 건축적 시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근대라는 커다란 테두리에서 고찰해 볼 때 인간의 움직임을 인정하는 시각의 재발견은 건축공간에서 새로운 공간 미학 이념이 등장했다. 그러나 근대 건축공간에서 시간의 개입은 자신이 동선, 시선의 주체가 기보다는 보임을 당하는 외부세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현대에 와서 공간에서 다중시점과 다양한 주체를 설정하는 과제로 연결되고 있다.

참고문헌

1. 플로미냐,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박훈태, 문화과학사
2. 이용재, 건축공간에서 미학적 인식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 학회
3.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시공문화사
4. 김선갑, 사건 개념을 통한 건축 이론 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5. 이정우, 접합과 펼쳐짐, 거름
6. 최은희 근대건축에서 시공간개념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7. 피터 콜린스, 근대 건축의 이념과 변화, 이정수
8. 이진경 근대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9. 브루노 제비 근대 건축 비평 김란기
10. 이상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 이상건축 2000.1
11. 이대암, 시간예술로서의 건축, 건축, 통권 196호, 1995.9

16) 이정우, 접합과 펼쳐짐, 거름
 17) 이정우, 접합과 펼쳐짐, 거름
 18) 기다온의 운동하는 시선을 상대성이론에 연관해 개념화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미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시선을 통해 포착한 형태란 입체파 미술보다는 다양한 시점에 상응하는 다양한 형상을 부여하고자한 바로크적 발상과 더 상관이 있다.(이진경, 건축문화, 1999.12에서 인용)
 19) "가다온의 근본적 오류는 두가지 역사적 오류는 건축역사를 두가지 근원 즉 기술로부터 발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과 다른것에 대한 추상적이고 수직적인 이즘들 로부터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브루노 제비, 근대 건축비평, 대건사)
 20) 플로미냐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매체로서 근대 건축